

# 물가 상승·인력 부족, 고전하는 학생식당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 코로나19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 중 하나는 학생식당이다. 비대면 학기로 전환된 이후 학생식당은 운영이 잠정 중단됐고,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자 자진 퇴사자가 속출했다. 가파른 물가 상승과 인력 부족 문제가 겹치며 학생식당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우리신문은 대면 학기에도 여전히 어려움에 놓여있는 학생식당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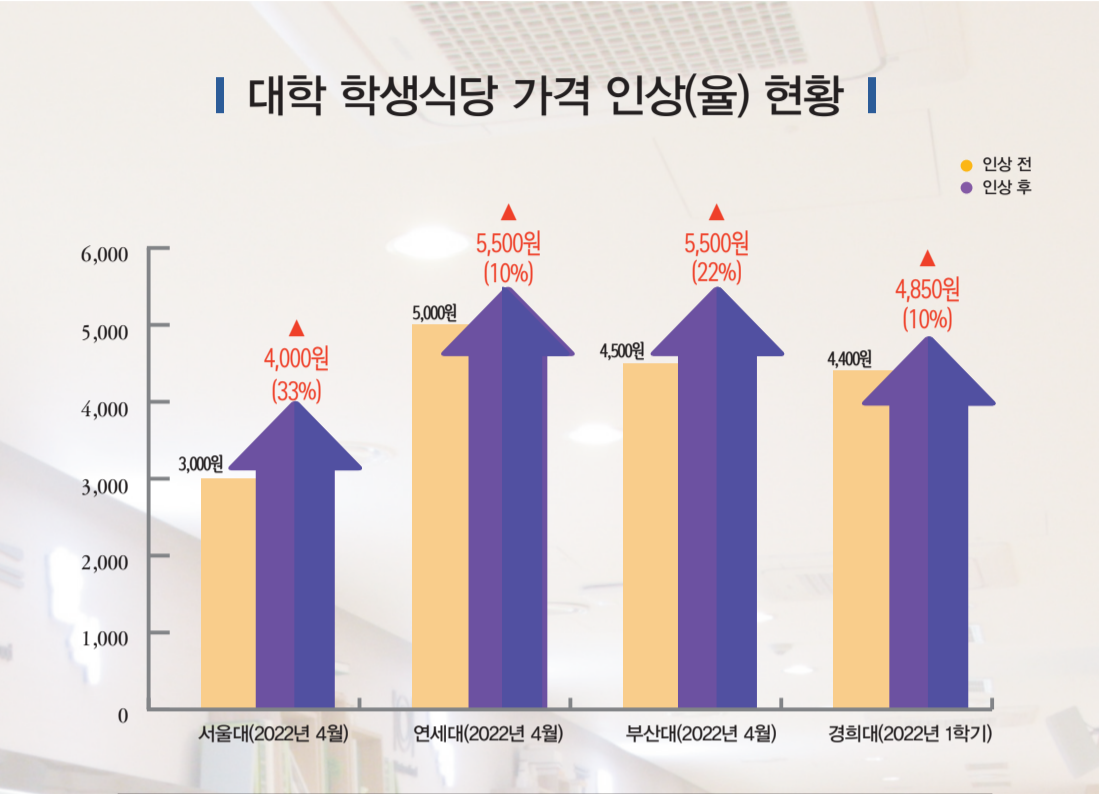
우리학교 대면 학기 전환  
정상 운영 시작했으나  
식당 이용객은 이전의 절반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학생식당 매출액은 10억 4천만 원(-67.1%) 감소했다. 과거에는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매일 2,000명, 금요일에는 1,300명의 인원이 학생식당을 방문했다. 하지만 비대면 학기가 시작되자 최대 700명 최소 300명의 인원만이 학생식당을 찾았다. 이용객이 확연히 줄자 학생식당은 조식과 석식 운영을 중단했다. 최소한의 인건비로 중식만을 운영하며 도시락 배달을 병행했다. 청운관 학생식당에서 근무하는 최은정 영양사는 “700명 가량의 비교적 많은 인원이 이용했던 날도 실험·실습 수업을 일부 대면으로 진행했던 지난 1학기 중 어느 날이었다”며 “교내 직원들의 소량 도시락 주문에도 배달을 나갈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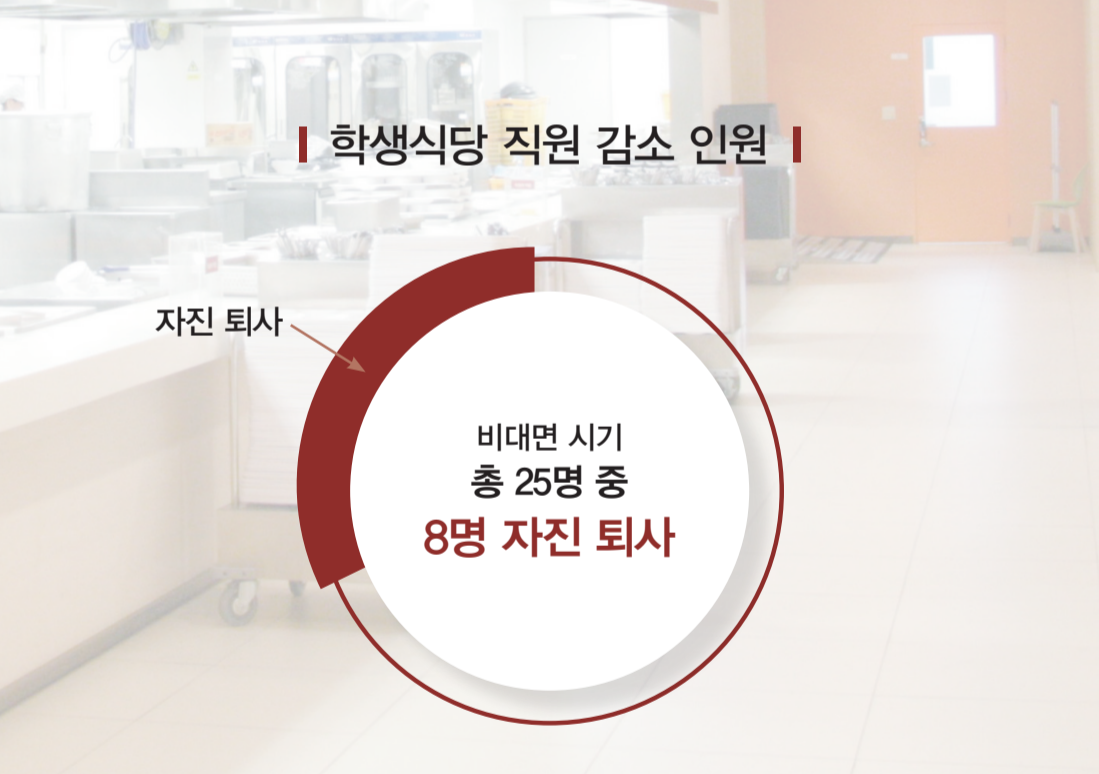
그러나 대면 학기가 시작된 지난 주에도 학생식당을 이용한 인원은 9월 1일은 100명, 9월 2일은 600명에 그쳤다. 코로나19 이전 이용객의 절반만이 복귀된 셈이다. 서울캠퍼스(서울캠) 학생식당을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생활)의 김민화 사무국장은 “정정 기간과 연이은 추석 연휴가 있었기에 실질적인 회복률은 장기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비대면 시기 자진 퇴사자 속출  
인력 공백 아직 해결 못해  
현재 일부 코너만 운영 중

우리학교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5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초기에는 이용객이 전무해 학생식당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학생식당이 운영을



\*경희대의 경우, 학식값이 고정적이지 않음  
\*인상 전: 4,000~4,800원, 인상 후: 4,500~5,200원 (포에 있는 값은 평균값임)



대학 학생식당 가격 인상 현황과 학생식당 직원 감소 비율

(사진=대학주보DB)

중단하자 조리사들은 장기 휴직에 들어갔으며 자진 퇴사자들이 속출했다. 코로나19 이전 총 25명이었던 학생식당 직원은 비대면 시기를 겪으며 총 17명으로 감소했다. 조리사, 조리원, 세척원 등 7명의 공



대면학기 학생식당 모습 (사진=이지수 기자)

석은 현재까지도 메꿔지지 못한 상황이다.

학생식당에서 음식을 배식하는 코너 하나를 운영하려면 2명의 조리사가 필요하다. 현재 청운관 학생식당은 인력 부족으로 일부 코너만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총 5개 메뉴와 5개의 코너를 운영했지만, 이번 학기에는 3개 메뉴와 3개의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최영양사는 “인력시장 상황이 변해 단체급식에 근무할 조리사를 구하지 못했다”며 “대면 학기가 시작됐지만, 이전만큼의 인력이 마련되지

않아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 또 “인력 총원 채용이 이뤄진다면 코너 운영도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  
전국 학생식당 "가격 인상 불가피"  
우리학교도 식대 올랐다

서울캠 학생식당은 지난해까지 4,000원~4,800원에서 책정됐던 식대를 지난 1학기부터 4,500~5,200원으로 인상했다. 최근 식자재 가격

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기존의 변동 폭에서 크게 벗어나 인상한 것이다. 최영양사는 “비대면 학기가 시작되던 시기에 3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연간 1억 원의 적자가 계속 발생해왔던 상황이라 가격 인상은 불가피했다”며 “(식자재) 원가 인상을 생협에서 오롯이 떠안는 것은 힘들었다”고 전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5.7% 상승했으며 생활물가지수는 6.8% 상승했다. 학생식당은 그 특성상 이미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기에 물가 상승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울대·숙명여대·연세대·부산대·전북대 등은 가격을 500원~1,000원 인상했다. 서울캠과 인접한 고려대와 한국외대도 최근 학생식당 가격 인상을 위해 총학생회와 논의한 바 있다. 이에 고려대는 기존 5,000원에서 1,000원 인상을 확정 한 상태다.

학생식당의 어려움  
학생들의 도움 필요

서울캠 학생식당은 해당 사안에 관해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이다. 푸른솔 학생식당은 현재 샐러드나 사이드 반찬을 선택할 시 5,300원, 선택하지 않을 시 4,500원~4,800원 사이인 메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영양사는 “판매가격 인상은 학생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기존 3천에서 찬수를 1~2개 줄여 인상 없이 동일 금액으로 제공하는 등 여러 방법을 모색 중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생활비를 쪼개 쓰는 학생들을 위해 (푸른솔 학생식당에서)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타 대학의 사례를 보았을 때, 현재 학생식당의 어려움은 학생들의 이용률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지난 3월 숭실대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는 대면 학기로 전환하며 생협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20%, 36%가량 증가했다. 특히 한국해양대학교의 경우 전년 대비 약 300%가 되며 코로나19 이전 매출액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생활 김사무국장은 “(대면 학기 전환 후) 코로나19 전 매출 상태로 회복한 다른 대학들의 사례가 많다”며 “우리 학교도 대면 수업 비중이 높아지고 학교에 방문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면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